

‘행동주의’ 압박에 배당 사상최대... ‘투자부진’ 우려도

상장사 499곳 배당금 26.3조 달해 20.8조 수준 전년대비 25.9% 증가
 “무조건적 ‘배당확대’ 요구 안돼 장기적인 가치 높이에 고려해야”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어지면서 상장사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의 배당금만 해도 사상최대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기업의 배당확대가 자칫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로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넷가이드가 지난 14일 현재까지 배당을 공시한 499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18 사업연도 배당금을 집계한 결과 총 26조 2676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배당금(20조8593억원)보다 25.9% 증가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심지어 이는 비교적 배당을 일찍 시작한 499개사만 합산한 것이어서 전체 상장

〈전년대비 2018년 배당이 큰 폭 증가한 기업〉 (단위: 억, %, %p)

기업		2017	2018	YoY
GS건설	배당성향	-12.5	13.5	26
	지배주주순이익	-168	583	흑전
현대그린푸드	배당성향	6.2	13.7	7.5
	지배주주순이익	113	134	18.1
LG	배당성향	9.5	18.9	9.3
	지배주주순이익	2396	1864	-22.2
이마트	배당성향	7.9	11.6	3.7
	지배주주순이익	616	479	-22.3
현대백화점	배당성향	7.1	8.6	1.5
	지배주주순이익	354	236	-6.9

자료=전자공시, 한국투자증권

사의 배당금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작년도 실적과 배당을 모두 공시한 309개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1.2%로 전년(16.4%)보다 5%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거세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일부 기업은 감익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배당규모를 올리는 발표를 했다”며 “기관 투자자의 의견권 강화, 주주총회를 위한 소액주주의 지지확보, 정부 정책을 고려해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과 대응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잔물 배당’으로 유명한 현대그린푸드는 2018년도 배당금을 183억원으로 전년(70억원)보다 약 2.6배 늘렸다. 배당성향 역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높아진 13.7%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저배당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주주행동을 한 결과다.
 최근 KCGI(일명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타깃이 된 한진그룹 역시 ‘그룹 중장기 비전 및 한진칼 경영발전 방안’을 통해 한진칼의 배당성향을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배당성향(3.1%)의 16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어 광주신세계도 KB자산운용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당금을 48억원으로 지난해(2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순이익 감소에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다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2.7% 줄어든 LG는 배당 확대를 통해 배당성향을 18.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9.5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포스코, 이마트, SK디

스커버리 등도 순이익 감소에도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같은 배당확대가 자칫 기업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주행동주의가 단순히 배당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1일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했고, 남양유업은 공개적으로 주주제안 거부시사를 밝혔다.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대신 무차입경영 등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어 배당 확대는 결국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에게 무조건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일일 수 있다”면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는 기업과 대화를 통해 배당 대신에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염지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2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

구분	시기	시/도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청약 접수	18일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 송정 풍산 리치안 플랫폼(%)	464	464	20~43
			부천시 중동	산중동역 렌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1,050	1,050	19~84
	20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1,540	1,540	75~105
21일	부평구 갈산동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	151	151	59~74	
M/H 오픈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1,116	419	39~114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1,199	659
	충남	아산시 당정면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	746	746	84	
		아산시 당정면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1,521	1,521	84~101	

* 위 내용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자료=리얼투데이

서울·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쏟아진다

분양캘린더

2월 셋째 주에는 서울·수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쏟아진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4 곳에서 총 3205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이 기간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오는 18일 경기 부천시 중동에선 1050

가구로 이뤄진 오피스텔 ‘신중동역 렌드마크 푸르지오 시티’가 공급된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선 1540가구로 조성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이달 20일 분양된다.
 이 밖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개발구역을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1116가구)’와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1199가구)’, 충남 아산시 당정면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1521가구)’ 등이 모두 오는 22일 건보주택 문을 연다.
 당첨자 발표는 4곳,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코스피 1.02% ↑ ... 국내 주식형펀드 상승세

주간펀드동향

미국의 정치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과 순자산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17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2월 8일~14일)간 전주 대비 1.02% 상승한 2225.85포인트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미국 섯다운(일시 폐쇄) 우려 완화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기간 기관은 2780억원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는 2월 옵션만기일을 활용해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수세가 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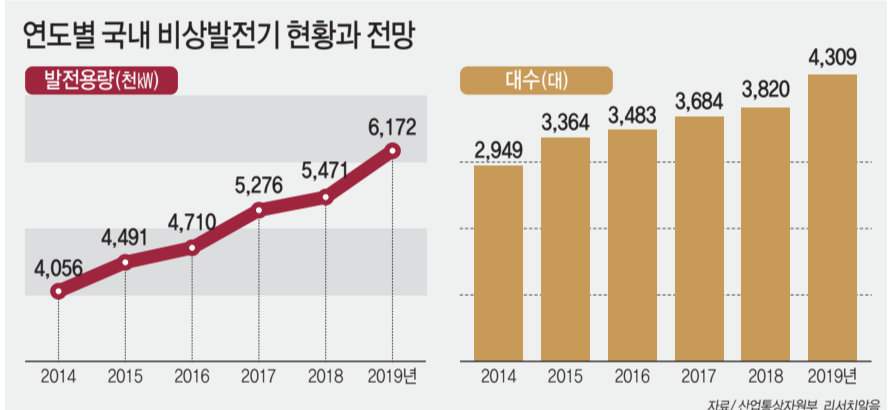
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02% 상승한 2047.56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 역시 전주 대비 0.27% 하락한 1039.20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1.12%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순자산은 3280억원 늘었으나 차이 실현으로 인한 3950억원 어치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1.59% 수익을 올렸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베트남(4.64%), 중국(3.01%), 중화권(1.57%)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러시아(-2.53%), 신흥유럽(-2.41%), 중남미(-1.84%)펀드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순자산은 3520억원 늘었다. /손염지 기자

비상발전기 시장 80% 점유... 올 매출 45% ↑

株라쿨라의 종목 지엔씨에너지

구글 등 16개 기업 2년내 IDC 구축 비상발전기 매출 450억 기록 예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산업이 등장하면서 초대형(Hyperscale)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대용량 비상발전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 기업에 수혜가 예상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석환 수석연구원은 17일 국내 인터넷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엔씨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며 이렇게 밝혔다.
 지엔씨에너지는 비상·상용발전기 전문 업체로,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전력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력공급을 대체하는 예비전원장치를 만들고 있다.
 최 연구원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가상화 등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가파르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분산돼 있던 전산망을 통합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력 비상시를 대비한 발전기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삼성SDS 등 주요 기업이 국내에 16개 이상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IDC용 비상발전기 수요 확대로 지엔씨에너지 비상발전기 부문의 외형성장이 확실시된다. 올해 IDC용 비상발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45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IDC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는 한 번 수주에 성공하면 향후 서버 증설시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신성장동력인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부분의 고성장도 예상된다. 점도 긍정적이다.
 최 연구원은 “지엔씨에너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하수 및 음식물쓰레기 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해 판매한다”며 “최근 지자체가 바이오가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사업초기 단계로 매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마진이 높아 이익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발전설비를 국산화하고, 발전시설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수행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텍엔지니어링’과 ‘한빛에너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기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지상과 지하의 온도차를 이용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설비로,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모량을 석유보다 최대 80%까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신축 및 재개발·재건축되는 민간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비율을 16%로 높이면서 사업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지엔씨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7600원을 제시했다. 현재주가 대비 52%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염지 기자

LH, 314개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 에너지공급시설을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전국 314개 사업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사전 예방활동

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LH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유지관리 직원 등 현장 근로자들이 점검에 동행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LH는 앞으로 2개월간 LH 점검반과 외부의 안전전문기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전국의 임대주택 및 건설현장 등 314개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균열과 전기누전, 해빙에 의한 현장환경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